5월27일 새벽 공격용 코브라헬기 2대 작전 펼쳤다

전교사 작전일지서 확인…3공수여단이 지원 요청
전일빌딩 이어 옛 도청에도 무차별 사격 가능성 커
20사단도 지휘용 헬기 요청…지상·공중서 진압작전

1980년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이 코브라헬기(AH-1J) 등 무장헬기와 공수부대를 동시에 출동시켜 지상과 공중에서 전남도청 진압작전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코브라 헬기 2대는 이날 도청 진압에 나선 3공수여단의 지원요청을 받고 투입됐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일빌딩뿐만 아니라 전남도청에도 무차별 헬기 사격이 가해졌을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22일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의 1980년 5월 27일 작전일지를 보면, 전교사는 이날 새벽 4시51분 3공수여단으로부터 무장헬기 지원요청을 접수받았다고 기록돼있다. 앞서 새벽 4시45분에는 20사단으로부터 요청받은 지휘용 무장헬기 전원이 도착한 것으로 표기됐다. 이어 새벽 5시17분에는 도청 선회 요청(500MD 3대)라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일지의 새벽 5시35분에는 'AH-1J(코브라헬기) 2대, 500MD 3대→××××"이라고 적혔는데, 이에 대해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는"무장헬기들이 작전을 마치고 착륙했다가 다시 이륙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분석했다.

반면 정수만 전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장은 새벽 5시35분치 헬기작전 내용에 대해 "무력시위를 위해 비행장을 이륙했던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놨다.

어떤 경우라도 '전차 잡는 무장헬기'로 불릴 정도로 살상력이 강력한 코브라 헬기 2대가 도청과 전일빌딩 등 금남로 주변에서 작전활동을 벌였다는 사실이 전교사 작전일지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계엄군이 충정작전이라는 이름 아래 5·18 시민군의 최후 항쟁지였던 도청 진압 작전을 개시한 시간은 이날 새벽 3시30분께. 3공수여단은 도청건물, 11공수여단은 도청 건물에 이웃한 전일빌딩과 YWCA, 7공수여단은 광주공원 일원 장악을 목표로 삼았다.

작전일지는 새벽 5시10분 도청 점령 완료, 이어 5시21분 도청 '잔적(시민군)' 소탕 완료라고 기록하고 있다. 새벽 4시51분 3공수여단으로부터 출동 요청을 받은 무장헬기가 도청과 전일빌딩 등에서 교전 중이던 시민군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벌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5·18시민군 상황실장으로 당일 새벽 도청에 있었던 박남선씨는 "새벽 4시께 날아든 헬기가 전일빌딩 상층부를 마구 쐈다. 2분 이상 헬기 사격이 이뤄진 것 같은데 도청 건물 안으로 몸을 피하는 바람에 몇 대가 날아들었는지, 전일빌딩만 사격했는지 도청에도 쏘았는지 분간할 겨를이 없었다"고 광주일보에 최근 증언한바 있다.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는 "5월 27일 전교사 작전일지대로라면, 공수부대 요청으로 출동한 코브라 헬기가 도청 옥상이나 전일빌딩 옥상 및 상층부에서 항전하던 시민군을 향해 공중사격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무장헬기 작전활동 시간, 공수부대 작전상황 등 시간대별 상황을 보면 지상에서 교전을 벌이던 공수부대를 도우려고 공중에서 옥상에 배치된 시민군 저격수를 목표로 삼았거나 극구 투항을 거부하며 버텼을 시민군 사기를 꺾으려는 시도였을 것"이라는 해석도 내놨다.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은 "작전일지 내용과 시민군 증언을 들어보면 전두환의 신군부는 5월27일 새벽 지상에서는 공수부대, 공중에서는 코브라 헬기를 비롯한 무장헬기를 동원해 시민들을 상대로 토끼몰이식 살상작전을 펼쳤던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생기부 수정 교사 구속영장 청구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노만석)는 22일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생활기록부를 수정한 혐의(배임수재·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업무방해)로 광주 수피아여고 교사 K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씨는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특정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역사회 파장이 큰 점을 감안해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이 학교에서는 일부 교사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접속해 특정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무단 수정하고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됐으며, 교육력제고 사업비 횡령 등과 맞물려 교장 등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정욱기자 jwpark@

전남대병원 의료진 '5·18 증언' 책으로

발간위 발족…4월 펴내기로

5·18민중항쟁 당시 전남대병원에서 근무한 의료진의 증언을 모은 책이 발간된다. 5·18 당시 전남대병원은 계엄군이 휘두른 곤봉, 대검에 부상당한 시민, 총상자로 북새통을 이뤘던 곳이다.

전남대병원은 1980년 5월 전남대병원에서 근무했던 의료진의 증언을 모아 책으로 발간한다고 22일 밝혔다. 병원 측은 증언집 임시 제목을 '전남대병원 5·18 의료활동집'으로 정하고 지난 21일 발간위 발족식을 열었다.

병원 측은 당시 의료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5·18의 이면을 시민에 알리자는 취지로 발간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5·18 관련 기밀문서를 37년 만에 공개하고 전일빌딩에서 헬기사격 탄흔이 발견되는 등 진실규명 여론이 거세지는 분위기여서 의료인들의 증언집 발간에 관심이 더욱 쏠린다. 의사·간호사 등 30여명의 증언이 실릴 의료활동집에는 당시 환자의 상태, 치료 과정의 어려움, 응급실 분위기, 목격 사실, 병원 내 생활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증언뿐 아니라 관련 자료와 사진도 게재되고 5·18 기간 전남대병원에서 진행됐던 상황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그래픽도 실린다. 5·18의료활동에 대한 증언을 책으로 발간하는 것은 광주시의사회의 '5·18 의료활동'(1996년)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발간 작업은 대상자 선정, 인터뷰, 자료수집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4월께 완료 예정이다. 병원 측은 발간 전 5·18 기념재단과 전남대 5·18연구소 측 감수를 받아 증언집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37주년 5·18행사위 발족 제37주년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 집행부와 5월 단체 관계자 등이 22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행사위는 이날 '촛불로 잇는 5월, 다시 타오르는 민주주의'라는 슬로건으로 공식 출범했다. /최현배기자 choi@

'5·18 마지막 수배자' 故 윤한봉 선생

47년만에 전남대 명예졸업장 받는다

1989년이후 38명 명예졸업장

'5·18 마지막 수배자' 고(故) 윤한봉(1947~2007년) 전 민족미래연구소장이 전남대학교 명예 졸업장을 받는다. 고인이 대학에 입학한 지 47년 만이다.

전남대는 오는 24일 열리는 '제 65회 2016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윤한봉 전 소장에게 명예졸업장(학사)을 수여한다. 졸업장은 고인의 부인 신경희씨가 받는다.

윤 전 소장의 명예졸업장 수여는 사망 10주기를 맞아 '합수 윤한봉 기념사업회'의 요청을 받은 전남대 농과대학이 대학측에 졸업장 수여대상자로 추천하면서 이뤄졌다.

고 윤한봉

윤 전 소장은 지난 1971년, 농과대학 축산학과에 입학했다가 1974년 4월 일어난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된 뒤 제적됐다. 민청학련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의 유신체제에 반대해 전국적으로 일어난 학생시위로, 윤 전 소장은 당시 이학영 씨 등 다른 학우들과 함께 구속됐었다.

윤 전 소장은 1980년 5월 당시 내란음모죄로 지명수배된 뒤 미국으로 밀항, 12년간 미국 망명생활을 했다. 이후 1993년 '5·18 수배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수배가 해제되자 귀국, '민족미래연구소장', '들불열사기념사업회'이사장 등을 맡아 5·18 정신계승 활동을 벌이다 2007년 6월 27일 생을 마감했다.

전남대는 박관현(1989년), 박기순(2005년), 박승희(2007년) 등 지난 1989년 이후 모두 38명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했다.

한편, 전남대는 이날 4150명(학사 3107명, 석사 893명, 박사 150명)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5·18 헬기사격 규명 결의안 국방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이 의원 29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던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이 22일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방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날 국방위 법안소위에서는 오는 28일까지로 예정된 결의안 통과 숙려기간이 남아있어 일부 반대의견이 제기됐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22일 처리됐다.

결의안에는 정부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고, 그 결과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처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초교 입학예정 1명 행방 확인

광주시교육청이 소재 파악에 나섰던 초등학교 입학예정 아동 1명의 행방이 확인됐다.

22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이 아동은 경기도의 한 보육원에 입소해 현재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다.

교육청 의뢰로 아동 소재 파악에 나선 남부경찰은 이 아동의 예방접종 내역을 열람해 당시 동행했던 보호자 연락처를 확보했다.

이 아동은 집안 사정 탓에 주소를 둔 광주에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시간외근무 조작 수당 챙긴 경찰

쌍나팔

○…퇴근 후 사무실에 살짝 들러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경찰관들이 감찰에 무더기로 적발돼 징계.

○…22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완도경찰서 경찰관 8명이 지난해 11~12월 각각 1~6회에 걸쳐 초과근무시간을 허위로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는데 이들은 일과 후 저녁 식사나 운동 등 개인 용무를 보고 사무실로 돌아와 지문인식기를 찍고 곧장 퇴근하는 방식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전남경찰은 이들에게 부당수령액의 2배에 달하는 징계부과금을 부과하고 4~6차례에 걸쳐 수당을 챙긴 경찰관 2명은 불문경고, 1~2건인 경찰관들은 직권경고 조치했는데,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향후 3개월간 초과근무를 신청할 수 없게 하고, 성과급에서도 불이익이 줄 것"이라고 설명.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017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 추가모집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학부 신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단위 계열	모집단위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예능	음 악 학 과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2. 18(토) ~ 21(화)
• 전형일 : 2017. 2. 22(수) 오후 2시

대학원 신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2. 13(월) ~ 20(월)
• 전 형 일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2. 22(수) 오전 10시~18시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2017. 2. 22(수) 오전 10시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원학과(M.A.)	○○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신학대학원 편입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 (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자
3학년	○명 (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자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2. 13(월) ~ 20(월)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7. 2. 22(수) 오전 10시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